Bio 선택기로 "통합이냐 퇴출이냐"

선진국 의약-바이오 통합으로 몸집 부풀리기 … 국내기업 M&A 시급

생명과학산업의 인수합병 및 제휴를 통한 통합 바람이 쉽게 멎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벤처캐피털이나 주식 시장에서의 자금 사정이 불확실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수익모델 구축, 신제품 출시, 기업가치 제고 등에 대한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제약기업, 바이오테크기업 할 것 없이 관련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의 흡수를 통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신속하고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즉, 가시적이고 확실한 수익원을 확보하여야 하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의약 및 바이오테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합 현상의 심화는 소규모의 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생명과학산업에도 심각한 여파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제약기업과 바이오벤처 기업, 일부 대기업 등 생명과학 분야에 사업영역을 두고 있는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 개발 역량 뿐만 아니라 마케팅 역량 측면에서 선진기업들에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선진기업들의 통합 노력에 대해 국내 관련기업들의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술 및 연구개발, 마케팅 등에서 선진 기업과의 역량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생명과학산업 및 관련기업들의 성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내 관련 기업들로서도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 기업 규모의 확대, 기업가치의 상승 등을 위한 통합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할 전망이이다.

생명과학산업의 성장과 사업으로서의 중요성은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로 규모의 확대와 집중을 통한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2/06>